

대한전선, 알루미늄 사업에서 철수

노벨리스코리아 주식 457만주 매각 ... 재무구조 개선 전환점 기대

대한전선은 보유하고 있던 노벨리스코리아 주식 457만5600주 모두를 노벨리스 본사에게 매각하기로 했다고 11월18일 발표했다.

주당 가격은 2만7000원이며, 대한전선이 지분 31%를 보유한 특수목적회사 케이론유한공사를 통한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됐다.

또 설윤석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359만9600주도 같은 조건으로 매각을 진행한다.

설윤석 부회장의 보유주식까지 포함한 총 매각금액은 약 2100억원이다.

노벨리스코리아는 캐나다의 알루미늄 생산기업인 알칸에서 분사된 노벨리스의 자회사로 1999년 대한전선과 합작법인으로 설립됐다.

고품질의 알루미늄 생산 및 공급이 주 사업으로, 연간 10억달러 이상의 수출을 기록하고 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노벨리스코리아 지분 매각 결정이 회사 재무구조 개선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1/21>